

農者天下之大本의 精神을

따뜻한 봄별이 내려쬐이고 먼산에 아지랑이가 성큼 탁아오는 그맘때쯤이면 우리의 농가에는 일손이 바빠져오는 계절을 맞이하게 된다.

넓은 들판에는 모내기를 하며 부르는 상사뒤 여하는 노래소리가 질펀하게 퍼지고 새참을 나르는 아낙네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게 된다.

이러한 정경은 우리가 어렸을적부터 늘상 보아왔으며 또한 그 정경속에서 자라오기도 했다. 파란 모들이 훈풍에 몸을 하늘거릴때 우리는 엄마의 젖꼭지를 물며 자라왔고 소에게 꼴을 먹이러가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며 자연을 피부로 보며 자라왔다.

「農者天下之大本」이라 쓰여진 배를 장대나무에 매달은 농악대가 금년 농사의 풍년에 감사를 드리고 내년의 풍년을 기원하며 장구소리와 피리소리에 덩더쿵 춤을 추는 마을사람들과 하얀 쌀밥에 양증맞은 송편을 입에 물고 뛰어놀던 그정겨운 광경들은 지금은 우리세대에서 어떤 행사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우리의 선조들은 논과 들을 떠나서 살수 없었고 우리의 선조들은 그속에서 많은 교훈과 진실을 흙을 통해 배웠지만 지금은 오직 흙을 만지던 손이 기름속에서 둔탁한 기계소리와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바뀌고 말았다.

시골에서 태어나 서울을 동경하였고, 대학을 서울에서 다녔던 나는 가끔이면 고향을 그리워했다. 어릴때 모양성에 소풍을가서 늘상 전쟁놀이를 즐겼던 곳이고 중·고시절 방학때면 가까운 사찰에 들러 맑은 냇가에 발을 담그며 어린 시정에 도취해 보기도한 그런 고향이다.

그러한 고향은 아무나 쉽게 찾는 곳은 아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서울을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계속되는 생활속에서 헤어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또 고향을 뜨지 않았던 사람들도 모두

그곳이 좋아서 뿐만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처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눌러 앉아 살고 있는 것이다.

남의 집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이고,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항상 남의 처지를 부러워 하는 우리들이지만 한여름 휴가때면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서울을 떠나 고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생각만해도 내가 무척 자랑스럽기만 하다. 옛날에는 크게만 보였던 산들이 지금은 적게 보이고 집앞에 있는 넓은 길

都市化에
밀린
우리農村

들이 지금은 그렇게도 좁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곳은 아직도 다른 도시에 비해 크지도 않고 그리 오염 되지 않아 시골스러움과 함께 순박함이 어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어렸을적 그렇게나 다정다감하게 어루만지던 시골할머니의 따사로운 인정이 숨쉬던 내고향도 이제는 서서히 탈바꿈 하고 있는 것이 매년 그곳을 찾을때마다 느끼는 감정이다.

정부에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개발도상국으로 국가가 도약을 하였지만 유독 농업을 주업으로 생활하는 농민들에게는 조금은 소

우리 農村에 再昇華해야.....

홀함을 보여준 것이 예전의 정부의 계획이었다.

중소기업의 육성과 더불어 70년대에는 수많은 공장들이 건립됨과 아울러 구인난이 심해지자 시골에서 베를 짜거나 들판에 나가 호미질을 하던 시골처녀들의 손에 편물기가 쥐어지거나 아니면 실타래를 쥐게 만들어 농촌일손 부족현상을 야기 시켰으며 정작 농토를 가꾸어야 할 청년들이 무더기로 농촌을 떠나버려 농사에 극심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金 洋 一
〈言論人〉

이러한 모든 불리한 여건에서도 묵묵히 식량 증산과 공업원료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손대대로 농사를 가업으로 알고 헌신하고 있는 농민들뿐이다.

우리 농민들은 점차 농업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농민의 의사가 존중 반영됨에 따라 타율에 의해서만 움직였던 지난날의 타성을 과감히 벗고 새로운 시대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오늘날 농업이 낙후되고 농민생활이 어렵게 된것은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앞서가지 못하고 다른 분야와의 경쟁에서 뒤진데

에 연유된 것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영농기술을 개발하여 정부의 주도하에 계몽사업을 전개하였으나 결과는 아주 미미한 정도에 그쳤다는 어느 농촌지도자의 보고서에서 지적된 것처럼 전래의 옛선조들의 경험에 의한 경작보다는 보수적인 사고방식에서의 나름대로의 우월감보다는 넓은 마음으로 연구 노력하는 자세가 적극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냇가에서 낚시를 드리우고 벼가 익어 곡식이 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벼를 돌아보며 다수확의 길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농민들의 적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농업은 낙후농업에서 도약의 농업으로 발전될 것이고 이의 영향으로 복지농촌의 꿈이 이룩될 것이다.

근래의 인구조사 통계표를 보면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아주 심각한 국면에 다다른 느낌을 갖게 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도시를 떠나는 세대에게 주택을 분양해 주거나 영농자금을 융자해주는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나 도시를 떠나는 세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것은 공업화에 밀려 농업이 뒷전에 밀려난 영향이라라.

인구의 과밀, 포만의 단어를 파생 시킨 것은 농촌보다는 더 나은 도시생활에로의 욕망, 생활을 영위 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시를 찾는데 연유가 있음에 우리의 농민이 복지농촌을 이룩함에 따라 이의 사회문제인 도시집중 현상문제도 사라질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업화의 물결속에서 우리는 잘사는 나라의 농민으로 발전됨에 따라 우리들이 찾는 고향은 아름답게,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을 것이다.